

담양군, 읍·면별 순회 보증인 795명 대상 교육 실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사무 처리·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 중점

담양군은 최근 각 읍·면에서 위촉된 795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사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했

다. 이번 교육은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 의무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며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증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부동산실명법, 농지법 등 타 법에 대한 배제없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등



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법무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보 증인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가을철 맞아 산불전문진화대원 기초체력검정 실시

구례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이하여 구례군 산림보호에 앞장설 산불전문진화대원(이하 ‘산불진화대원’)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14일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구례군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산불진화대원 공개모집을 하고, 신청 인원 47명 중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6명을 제외한 41명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였다.

오는 10월 26일까지 산불진화대원 최종 선발을 마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체력검정은 개정된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반영하여 산불진화대원들의 기초체력은 물론 원활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종목도 추가되었다. 산불진화대원은 11월 2일

오는 26일까지 최종 선발 내달 2일부터 12월18일까지 주요 등산로 등 순찰활동

부터 12월 18일까지 구례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산불예방·홍보방송 논두렁 소각행위 지도,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작업 선봉에 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례군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고, 산불 예방활동은 물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구례군 산림보호와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 반남면에 만개한 코스모스, 가을 정취 선물

3개 사회단체 꽃길조성사업

나주시 반남면 주민들이 가을 시작 전 파종했던 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계절 정취를 뽐내고 있다. 15일 반남면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전남태), 의용소방대(대장 최기선), 반남국화영농조합(대표 김재준) 3개 단체 회원 60여명은 가을을 앞둔 지난 8월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코스모스를 파종했다. 코스모스길은 반남면 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나주국립박물관, 영암 신북면 경계, 삼포교 앞 등 3개 구간(총 6km)에 조성됐다. 당초 10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마한문화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돼 아쉬움을 낳았지만 국립나주 박물관, 반남고분군을 찾는 관광객

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주민들의 마음을 흡족케 하고 있다. 전남대 주민자치위원장은 “기대한 만큼 코스모스가 만발해 반남을 오고가는 이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물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황금 들녘과 함께 코스모스길이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기차마을서 한복 입고 인생샷 찰카

오는 31일까지 2020 한복 세대공감 전통문화 체험 운영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곡성 선진강기차마을에서 한복체험 및 전시, 교육 등 다양한 한복 체험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가족과 함께 한복 미로(美路) 행복가치 UP’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기차마을 중앙광장에서는 다문화가정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한복체험, 관광객 한복 패션쇼, 한복 입고 웃을 던져라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장미공원 유리온실에서는 한

복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단령, 앵삼, 원삼, 철릭 등 9종의 궁중 한복을 통해 한복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한복들을 직접 입고 다양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 이번 행사는 곡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주최하는 ‘2020 한복문화 지역거점 운영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사업을 통해 곡성군은 한복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찾고 지역거점으로써 특색 있는 한복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복 세대공감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한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10월 23일에 마감되는 2020 곡성한복사진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의장단 구성

의장 화순제일중 이수빈 부의장 능주중 이슬 선출

화순군은 지난 14일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이끌어 갈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14명을 위촉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장에는 이수빈(화순제일중 3년) 의원, 부의장은 이슬(능주중 3년)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교육문화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 아동권리 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도 선출도 마쳤다.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만 18세 미만으로 화순군 거주 아동 또는 화순군 소재 교육기관에 재학 중



인 아동으로 구성해 전남북부권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수빈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장은 “여러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회에 참여하는

만 큼 아동·청소년의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결을 아동·청소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함께 꿈이 커가는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